

## 전문대 간호학생들의 첫 임상실습 체험 연구

박 미 영\* · 김 순 이\*\*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임상실습은 간호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강의실에서 이론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간호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론적 근거 하에 임상실습지도를 받으며 체계적인 간호지식의 확장을 필요로 한다. 특히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자신의 간호관을 형성하게 되고(서문숙 외, 1966) 간호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 간호학생이 임상실습경험에서 심각한 불안과 긴장을 경험(고성희 외, 1994; 문미숙, 1998; Mahat, 1996)한 것과 임상실습 경험을 통해 발전 지향적 성숙(서문숙 외, 1996; Beck, 1993)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전문대 간호학생들은 1학년에서는 교양과목과 전공 기초과목을 이수하고 2학기에 가관식을 통해 나이팅게일의 후예로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막연하게나마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현실화하고 있다. 2학년이 되어서 임상실습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데 전공과목을 완전히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상실습을 먼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전문대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은 대학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임상실습하기에 적절한 곳을 선정하여 임상실습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와 병원 간호교육팀과의 관계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임상실습지도를 하는 중에 임상실습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간호학생들과 나누면서 이 체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연구할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부속병원이 없는 전문대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은 부속병원이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임상실습 현장에서의 체험을 탐색하여 현재 전문대 간호학생들의 체험을 이해하고 이들 체험 속에서 간호현상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혜천대학 간호과 부교수

\*\* 혜천대학 간호과 부교수

## II. 본 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밴 매넨(Van Manen)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준하여 의미를 기술하였다.

### 1. 체험의 본성으로 돌아가기

체험의 본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체험의 본성을 이해하고 현상을 지향하고 현상학적 질문을 형성하고 가정과 선이해의 설명단계로 이어지게 된다.

#### 1) 연구자의 가정

1. 3년제 간호학생들의 임상체험은 4년제 간호학생들의 임상체험과 다른 경험일 것이다.
2. 임상실습이 시작되는 2학년초기에 가장 갈등이 많고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 혼란과 불안을 경험할 것이다.
3. 간호학생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친구, 선배 등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할 것이다.
4.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은 개인의 삶이 간호현상과 관련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임상실습 경험은 간호학생들을 다른 과 학생들보다 더 어른스럽게 성숙시켜 줄 것이다.

#### 2) 연구자의 선이해

본 연구자는 선이해를 통제하기 위하여 심층적으로 문헌을 고찰하는 것을 억제하고 연구자 개인의 사고, 지각, 감정을 중시하기 위하여 매일 매일의 연구일지를 기록하여 개인적인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 2. 실존적인 조사

#### 1) 있는 그대로의 경험탐구

현상학적 탐구는 개인의 경험을 출발점으로 하며 삶의 바다의 심연으로부터 수면위로 끌어

올려 인과적 설명이나 해석적 일반화를 시도하지 않고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간호학생시절의 개인적인 경험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임상실습시 중간 중간 간호사 선생님들의 친절한 가르침도 있었지만 합격징후를 측정하는 것은 학생전담이었고 검사실, 공급실에 가는 모든 심부름은 주로 학생들이 담당하였다. 특히 응급실 실습할 때는 검사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렸는지 모를 정도로 심부름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밤에 실습 시에는 새벽4시부터 한자를 깨워서 합격징후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 때는 너무나 조심스럽고 숨이 턱턱 막히는 듯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끼게 되었고 몹은 천근만근이나 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아직도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혼수상태의 눈 뜬 기관적개 환자의 기관지 내관세척을 떨리는 손으로 세척하고있는 동안 “그르렁” 호흡소리에 흡인도 해야하고 그때 환자의 본비목이 식습복에 튀어 배겼을 때 아찔한 울고 싶은 순간이었다. 어려운 만큼 친구들과의 깊은 우정을 나누고 서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힘이 되어 주었다. 졸업학년의 실습은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하였기 때문에 환자, 간호사간 관계에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졸업 후에는 모 대학 병원에 간호사로 취직이 되어 *team method* 체제하에 나의 한자를 모두를 전담하여 간호하는 가운데 총체적인 간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경험은 학생이 아닌 학교의 교수로서 돌아와서 간호학생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똑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음을 느꼈고 지금의 학생들은 임상 실습하면서 어떤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지를 알고자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다.”

#### 2) 어원의 추적

어원에 주목하다보면 말들이 그 본래의 원천인 체험과 생생한 연관을 갖고 있던 때의 본래적인 생활 형식과 종종 만나게 되며 그 의미를

좀더 명확히 할 수 있다. 주요단어의 근원을 추적하기 위해 언어적 자원과 사전을 통해 수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간호학생, 임상, 실습의 어원을 추적하기로 하였다.

간 호 : 상병자를 돌보며 시중을 들(대국어사전, 1984)

임 상 : 환자를 진찰 치료하기 위하여 病床에 임함, 실지로 환자를 대하여 의학을 연구함(대국어사전, 1984)

실 습 : 이미 배운 이론을 토대로 실지로 해 보고 익힘(대국어사전, 1984)

실 습 생 : 실습을 하는 학생(대국어사전, 1984)

실습수업 : 가르치는 기능과 숙련을 갖기 위하여 교육 실습생이 받는 수업(대국어사전, 1984)

### 3) 자료수집

현상학적 탐구에서 강조되는 것은 언제나 체험의 의미이며 경험한대로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다. 참여자의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3차에 걸쳐 녹음하여 이루어졌다. 1차 면담은 처음 실습 1주째, 2차 면담은 3주째, 세 번째 면담은 5주째 시행하였다. 1차 면담은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2차면담에서는 1차 면담 자료를 고찰할 기회를 주었고 3차 면담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였으며, 변화되어 가는 양상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시 연구참여자와의 재확인 작업, 공동연구자와 간호학교수 2인에게 읽게 하므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녹음된 면담내용을 글로 옮겨 쓴 후 디스켓에 저장하고 복사된 것을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주제의 구조, 공동주제 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는 벤메넨의 방법을 따라 이행하였다.

### 4) 현상학적 문헌참고

실습체험과 관련된 현상학적 문헌 참고는 연구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쓰여진 것이 있는가를 조사한다. 이러한 현상학적 문헌은 지금

연구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헌을 통해 현상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문헌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사연구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의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자료의 분석이 끝난 후 문헌을 고찰하였다.

간호학생들이 간호에 대한 흥미를 잃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임상실습 경험에서의 갈등이라고 나타났다. 특히 첫 임상실습은 다른 어느 경우보다도 더 심각한 불안과 긴장을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문미숙, 1998).

서문숙 등(1996)은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에서 간호관 형성 과정으로서 근거자료에서 나타난 핵심범주는 역할 모델에 대한 요구, 비교육적 실습 환경, 지식 부족, 정서 상태의 변화, 실습 태도, 피로감, 회의, 궁지, 실습 산물 등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해 볼 때 간호학생들은 수간호와 일반간호사의 역할모델 부재, 비교육적 실습환경, 자신의 지식부족으로 인해서 실망감, 화, 소외감, 두려움, 당혹감, 갈등 등의 정서상태의 변화, 육체적 혹은 정신적 피로감과 능동적 혹은 수동적 실습태도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고성희 등(1994)은 첫 임상실습을 통하여 간호학생들이 경험한 바를 분석한 결과, 6개의 범주를 확인하였다. 간호학생들은 처음 병동에 접하여 생소한 병동 환경 적응의 어려움에 따른 긴장을 경험하였으며, 숙련되지 않은 간호기술을 사용하는데 따른 두려움과 불안 또한 간호학생들은 학습한 지식과 기술의 실제 적용의 어려움, 간호 지식 및 기술부족에 따른 어려움, 병원 내에서의 원만한 대인 관계형성의 어려움, 임상지도의 비효율성에 따른 어려움, 간호학생의 역할 모호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 신체적 피로 기대와 현실간의 차이에 따른 실망과 회의도 초래. 그러나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하

여 인간에 대한 이해 증진, 학습증진, 간호에 대한 만족감 및 간호의 정체성확인 등 성취감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ck(1993)은 현상학적 접근으로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에 대한 연구 결과 104개의 의미있는 진술들로부터 6개의 범주를 확인하였다. 불안염습(pervading anxiety), 감정포기(feeling abandoned), 현실적 충격에 직면(encountering reality shock), 무능함으로부터 자기도피(envisoning self as incompetent), 미심쩍은 선택(doubting choices), 임상실습 끝 부분에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므로 향상된 결과(uplifting consequences)를 갖게됨을 확인하였다.

Pagana(1988)는 262명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첫 임상실습에 대한 연구에서 6가지 위협(threat)을 확인하였다. 인격적 부당함, 실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 임상지도자, 겁이 나고 놀란 느낌,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났으며 간호교육자들은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정서적 반응에 대하여 말로 표현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Kleehammer(1990)는 임상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따른 간호학생들의 불안인지에 관한 연구를 시도한 결과 가장 높은 불안은 임상실습 초기에 경험하게 되며 또한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는 불안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Mahat(1996)는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간호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연구에서 4가지 주요 스트레스 범주를 확인하였는데 대인관계, 초기의 경험, 무력감의 경험, 가치절하 경험으로 확인하였으며 대처(coping)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진술은 8개 범주로 나타났는데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것 외에 문제해결, 책임을 수용하는 것, 자기조절, 긴장완화, 회피, 희망적 관측, 무감정(negative feeling)등이었다.

임상실습은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나 만족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간호 학생들이 흥미를 잃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임상실습 경험에서의 갈등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첫 임상 실습시 불안을 느끼는 원인으로는 임상실습 장소의 생소함, 간호지식 및 기술의 부족, 다루기 어려운 환자들의 존재, 실습장내에 존재하는 동통, 추한 모습, 나쁜 냄새, 성기(sex organ)노출, 사회적 문제, 임종 등 어려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 뚜렷이 집어낼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 등을 들 수 있다(박청자 외, 1994).

그러나 현 임상실습 상황은 이론과 실무의 gap, 간호기술의 습득 기회부족, 실습 지도교수 부족, 학생들의 실습의욕 저하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임상경험을 습득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되는 건강요구와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능숙하게 함양하여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학생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관의 수립이 시급하며 대학 또는 교수들이 일반적으로 교과과정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는 무시하는 폐단이 크다고 지적하였다(엄영란 등, 1998).

Windsor(1987)는 임상실습 경험에 관한 간호학생들의 지각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이 원하는 주요 학습범주로는 간호기술, 시간관리, 전문적 사회화로 나타났으며 학습의 질(quality)은 학습자의 준비성, 지도자의 특성, 폭넓은 임상경험의 기회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였다. 또한 임상실습을 통하여 전문직업적 성장을 향하여 3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첫 단계에서는 업무수행의 제반 규칙에 대한 압박감과 불안을 느끼게 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간호사 역할을 동일시하려고 애쓰는 단계가 되며 세 번째 단계에서 학생들은 좀더 독립적이 되고 역할 확장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간호업무 수행에 있어서 좀더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효정(1988)은 임상실습

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강의실의 학습 장과는 다른 현장학습에 임하는 학생들의 충격과 불만을 가능한 한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태세를 높여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간호학생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임상실습에 임하게 되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물론 그에게 간호를 받는 환자에게도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경순 외(1999)의 연구에서 첫 기본간호학 실습상황을 접하게 되므로 겪는 정서로서 불안은 긴장감, 어려움, 두려움, 걱정 및 부담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정서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임상실습으로 연장되어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기본 간호 실습 교육 방법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기본간호에 대한 이해 중심의 교육으로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임상에서 직접 간호대상자를 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내 기본간호실습실에서 간호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연마하여 스스로의 성취감을 증진시키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간호를 시행하고 있는 임상실습교육을 통하여 한층 더 진보된 간호지식을 쌓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간호학생들은 실제적으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습 교육 때부터 부족한 간호 지식과 기술 적용으로 인해, 간호 제공에 대한 심리적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그로 인해 동기와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대상자들의 학생에 대한 신뢰감 저하로 인해 학생들의 간호 제공이 거부당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다고 하였다. 박송자(1993)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 유형을 분석하여 조사한 결과 임상실습에 관한 태도 유형은 세가지로 나타났는데 유형1은 간호에 대하여 이상이나 꿈을 갖지 않았으며 간호학이 적성에 맞지 않지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실습에 참여하는 원만한 적응형으로 나타났으며 유형2는 어릴 때부터 하얀 가운을 입은 나이팅게일이 되고 싶었고, 적성과 취미에 맞아서 스스로 선택했으

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간호사의 삶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나이팅게일 사회봉사형으로, 유형3은 학교를 졸업한 후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간호학을 선택했으며, 필요에 의해 열심히 임상실습을 하다보니 흥미도 생기고 적성에도 맞는 것을 느꼈다는 현실 직업추구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기준하여 임상실습 지도에 있어서 학생 개인별 실습에 대한 심리적인 태도 유형을 파악하여 실습지도시 개인별 또는 그룹별 각기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3.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이 단계는 주제분석을 하는 것과 본질적 주제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의 주제분석은 테이프에 녹음된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여러 번 읽으면서 연구자는 학생들과 면담한 생활세계에서의 학생의 실습체험 현상을 나타내는 주제측면을 분리해냈다.

본 연구에서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을 통하여 본질적인 주제분석을 한 결과 학생들이 체험한 임상실습체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실습이 시작되는 첫 주는 두려움의 첫걸음, 실습 중반부는 이론과 실제상이의 울동적 양상, 실습이 끝나는 시점이 마지막 4-5주는 변화되는 자신의 발견과 확장의식으로 표현하였다.

#### 두려움의 첫걸음

##### 1) 두려움

학생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처음 실습을 시작하고 처음 만나는 환자, 간호사, 보호자, 낯선 병원환경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부속병원이 아닌 곳에서의 실습은 2학년 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물어보기도 그렇고 내가 뭔가를 해야하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제가 처음에는 식습 딱 갔을 때 처음에는 딱 겁을 먹고 들어갔어요

간호사들이나 환자들도 좀 보호자들 무서운 보호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티게 걱정이 되고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두려움이 먼저 앞섰고 걱정도 되고 가서 잘 할 수 있을 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딱 병동에 처음에 올라갔을 때 환자 인원이 90명이 넘드라구요 그대가지고 간호사들 자체가 기대했던 것보다 안정되고 조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너무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식습 나오기 전에는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간호사들한테도 많이 혼났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배웠는데 실제에서 딱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배운 건데 이게 뭐였지

## 2) 어찌할 바를 모름

낮선 실습장소에서 자신의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학생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느낌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부분, 병원의 악취나는 환경, 자신이 버려진 느낌과 더불어 간호사의 무심히 대하는 태도에서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경티라는 처음이고 아직 배우지도 못한 part에다가 아! 어떻게 하나

많이 배워도 이론과 실제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배운 상태도 아니고 적게 배운 상태에서 나와서 하니까 여기서 이제 새로 배우는 거예요

보호자들이 환자침대에 누워서 잠을 잤던가 병실에서 김치 꺼내 놓고 밥을 먹고 쓰레기도 그냥 항쪽에 모아두고 딱 여러 가지 지저분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악취가 나고 그래서 정말 린들었어요, 숨을 못쉬겠는거예요.

바이탈 사인하러 가서 할 일이 없다 싶으면 고개만 빼꼼 내밀고 다시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실제하고 너무 달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식습이 처음이니까 너무 너무 긴장을 했었어요 굉장히 긴장을 하고 딱갔는데 그때 수간호사 선생님이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냥 얼뚱얼뚱 서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갔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별로 그냥 학생들 매번 오는 학생들이니까 왔나보다 별로 관심을 안가져주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서있어야 되고 내가 무얼 해야 되는지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딘가

바이탈사인 들어갈 때도 ‘안녕하세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괜히 쫓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환자나 보호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쩔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하고 싶은 것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냥 체온재고 맥박재고 혈압재고 후딱 나오고 그랬거든요

## 이론과 실제사이의 율동적 양상

이전에 가졌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실망스러움으로 바뀌고 간호행위시 이론과 실제상의 차이,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가 아닌 대립하는 의사와 간호사, 다른 대학 학생들과의 불협화음, 간호사들의 교육적 비교육적인 태도에 대한 혼돈, 학생들에게 주어진 바이탈 싸인 측정에 대한 간호사들의 일방적인 태도 등에서 학생들을 혼란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배워야하는 학생들의 힘든 내면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 1) 간호사에 대한 실망

학생들은 간호사의 역할에서 학교에서 배운

전문간호사의 환상이 무참하게 깨어지고 있는 현상을 표현하고 있다.

어떤 환자 분들이 뭘 물어보면 그냥 이건 머리 아픈데 먹는 약이예요 그냥 그러고 말아요 환자 분이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세하게 듣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대처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의사한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거기서 끝나고 또 오더를 받아서 하고 그래서 좀 많이 실망했어요

환자 분이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 자신들이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 알고 있다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 2) 이론과 실제와의 차이 인식

배운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대충하고 있다는 느낌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실습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하고 병원 임상 나왔서 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걸 느꼈어요

우리가 *bed making* 할 때 학교에서는 실습 때 실습실에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하나 좀 실습을 그때 모서리까지 좀 이쁘게하고 탱탱하게 하여 목창방지 그런거 다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대충 끝에 묶기만 해요

### 3) 간호사와 의사와의 대립

학생들은 간호사의 위치가 의사의 하위에 속해 있다는 것을 현실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갈등하고 이 상황에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디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간호사와 의사하고 싸우는 것 봤어요 의사가 일방적으로 간호사에게 많이 힘을 냈어요. 힘을 냈는데 그 간호사는 나쁜대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간호사가 의사와 동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하

나 그런 고민들을 해야겠고 또 그러려면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구요 또 실망되는 면이 있었어요

### 4) 다른 학교 학생과의 불협화음

다른 학생과, 또는 부속병원을 가진 학생과 이 질감속에서의 갈등과 경쟁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이 나왔는데 맨지 딱 경쟁의식 같은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뭘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다가 부르면 신부름하고 그랬는데 그 학생들은 앉아서 책보고 공부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학가 낮아요

다른 학생들하고 어색함이 있었고 재네는 일도 안하고 우리만 일하고 너무 생각이 다르고

### 5) 간호사 교육과 비교육적 양상에 대한 혼돈

학생들은 간호사의 비교육적인 태도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를 보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으며 반면 교육적인 간호사에 대한 마음의 감사를 보내고 있다.

차트를 보고 시간날 때마다 적으려고 하면 거기서 무얼 하느냐고 할 일 많은데 무얼하느냐하면서 계속 멀으려 내려보내려고 하고... 이 환자가 뭐가 나쁜지 어떤 병인지 이 병동에 어떤 병이 많은지 잘 파악이 안되어요

수간호사님한테 라제물은 냈는데 지켜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냈니? 냈어 그런 말도 할참 뒤에나 하고

바이탈 사인 늦는다고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아니 학생들 그렇게 늦어서 어떻게 딱 그러면은 아! 한다고 치선은 다해서 했는데 그런 말은 하시니까 마음이 많이 상처가 받아가지고 아 어떻게하... .

어떤 것을 관찰하는데도 뒤에서 보다가 계속 봤으면 좋겠는데 좀 돌아다녀야 되고 왜냐하면

경리적거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혈관이 막혔을 때 학생 혈관이 막혔으니까 뚫어주고 था요 그러면은 처음인데 어떻게 되지 모르는데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바쁘니까 신경질 내면서

아니 너는 뭐하다가 이제 왔니 지금 갖고 오면 어떻하냐고 그러셨어유

진짜 솔직히 말해서 딱 뚝뚝거리고 딱 한잔 내시고 짜증내시고 그러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너희들은 할 줄 모른다는 식으로... 기회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학교에서 배울 때 간호사는 교육자적 입장도 있다고 배웠는데 그런 면이 없는 것 같아유

배우는 입장에서 작은 못해도 사소한 것들이 힌들어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꼼꼼히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 좋아유

이 약은 어느 때 어떻게 복용하는 거고 또 왜 드시는 거고 오늘 검사하는 어떤 거고 무엇을 위해 하는 거고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유

선생님이 나보고 *injection*을 한번 해봐 하나 하나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환자 환경 투약하는 방법부터 해갈고 이 약은 무슨 약이고 얼마나 들어가고 환자한테 들어가면 어떤 증상이 있기까지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6) 한가지 업무를 책임져야하는 부담감과 단순 업무 반복으로 인한 지루함

바이탈 사인과 심부름이 학생의 전담인양 마냥 학생들에게 맡겨버리는 간호사들의 태도와 모든 환자들을 다 감당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

감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또 다른 것을 배울 수 없다는 쫓기는 듯한 기분을 표현하고 있다.

그 안에서 뭔가 다른걸 찾지 못하고 이 시간이 되면 바이탈 재고 이 시간이 되면 뭐하고 뭐하고 그런 일에 쫓기고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왜 이걸 한다고 이렇게 했나, 뭔가 보람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고 일을 했을 때 성취감도 없고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볼 때도 그 안에서 정말 간호사가 저래서 좋구나 그런 모습을 많이 느낄 수가 없거든요

신부름을 많이 시키세유 그리고 학생의 할 일은 바이탈이다라고, 신부름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바이탈을 못 욱리고 나면은 딱 학생들 바이탈도 안해왔네 이러면서 학생들이 할 일도 안 했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아! 우리들은 *vital girl*이구나 그리고 그것에만 신경 쓰게 되니까.... 병동생활도 지루하고

먼저 실습 나갔던 친구들이 힌들다. 너희들은 *vital*만 한다 이전 거 뿐이었으니까 어떤 기대감이던지 또 학생으로서 뭐 어떻게 공부할 해야되나 그런 것도 모르겠는거예요

3년제라 할 수 없지만 맨 처음 나왔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정말 간호사로서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그냥 일반 조무사나 아르바이트생 쓰는 것처럼 물론 자기생각하기 나쁘지만 그런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공부가 되겠지만 신부름 식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

실질적으로 진짜로 앉아서 차트를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곤 하루에 30분 정도 저희에게 부여가 되지 않았어유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한테 관심을 안 주시는 거예요 처음 딱 갔더니 아! "이제 우리가 좀 편해지



겠다” 이런 말쑤를 하였는데

딱 봐보니까 아우 ! 우리학생들 왔네 그러면  
서 아! 이제 우리도 vital 이해도 되겠다 고 하  
고, 환자들 거의 우리 학생들이 전부해야하고  
그래가지고 처음 할때니까 환자들은 많고 굉장  
히 부딪스럽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가  
지고 vital sign하다보면 점심시간 되고 또 체  
크하다 보면은 집에 갈 시간이고

학생의 본분은 vital이다. 그런 식으로 취급  
을 하시고 다른 것도 보고싶고 검사실도 모셔다  
드리면은 환자분들 어떤 검사기도 진짜 알아보  
고 싶고 그런데 딱 가지마자 학생은 가도 태운  
그러면서 학생 병동 바쁘지? 빨리 가서 vital이  
나 해. 그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배운 기쁨이 없  
어요

시간이 계속 지나가니까 하루하루 생활이 똑  
같은 거예요 맨날 가면은 vital하고 심부름하고  
환자분 어디 모셔다 드리고 그러는게 쏘 시간  
지나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실습을 한지 3주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굉장  
히 익숙해졌고 입에나 환자나 보호자, 간호사  
등하고도 많이 익숙해졌는데 그러다 보니 입에  
딱 매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게 너무 기쁘고 뿌듯하고 이래  
서 간호사가 이렇게 힘든걸 하는구나

지금엔 매일 하는 일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vital 재는거, 검사실 갔다오는 것, 환자들 옮  
겨주는 것으로 처음엔 겁나고 그랬는데

7) 익숙과 여유스러움

익숙해짐으로써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다  
른 간호기술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자신을  
점검하고 간호사와 의 관계도 친숙한 관계로 발

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vital 재는 게 쏘 빨라졌어요, 시간이 남을  
때 간호사 conference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자  
유를 타온 투약하는 것, 약품에 대한 것을 찾아  
보거나 메모하거나..

chart도 많이 보고요 처음 환자들 오면 진단  
명을 확인하고 환자를 보러가게 되고요

여지껏 실습동안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환자들과 의사소통이나 뭐 아니면은 이  
촌적인 그런 것들 많이 알게되고..

처음에는 너무 막 어떻게 하나 이런 선생님들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니까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injec.하는 거 보고 옆에서  
도왔드니까 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익숙해지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받아드리게 된 것 같아요

변화되는 자신의 발견과 확장인식

임상실습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새롭게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을 재정  
립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의 마음가짐을 새  
롭게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1)전문직 간호사의 역할 인식

학생들은 전문 간호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재정립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어디 아프세요. 여기 아프세요 그렇게 말 할  
마다 별도움없이 안 되는 애기지랄 그런 애기를  
해주는걸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직은 학생이  
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려고 생각을 해요. 간호사들 모습  
보고 처음엔 실망도 많이 했지만 그러면서 그

양에서 정말 저런 간호사의 저런 모습은 배워야 겠다

가운입고 캡쓰고 환자나 보호자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 간호사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 행동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과연 간호사가 전문직인가? 그런 생각을 퇴게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늦게 학교를 왔고 전문직이라는 그런 직업이라는 것에 기대를 좀 많이 갖고 왔거든요

### 2) 알아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 형성

학생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심히 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하나하나 배워가는 자체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요즘에는 또 뇌입상수에 대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 해주니까 오히려 환자에게 신뢰감을 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질병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관심이 가니까 그 사람이 질병이 어떤 건가 알고싶고 공부를 해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싶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9V를 해보니까 해서 했는데 첫 번에 성공을 했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하나 하는데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 또 환자 분한테 자주 애착이 가는 거예요

### 3) 변화되어 가는 마음가짐

임상실습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폭넓어지고 간호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으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긍정적인 변화과정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이 비록 두렵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자신의 반성과 더불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적극적인인

노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사람의 간호인으로 태어나기 위해 꾸준한 발전의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내 성격은 아직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병원 실습하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환자 분들과고는 참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확실히 간호사 선생님과도 친해져서 이제는 조금씩 서로 웃으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좀 물어봐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대인관계에서 힘들지 않아요

정신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환자 손잡아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주는 것 또 병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아는 대로라도 설명을 해드리면 조그마한 부분들이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요즘에 느껴지고...

맨날 *vital*만 하러가네 그런 생각으로 다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배운 점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환자 분들이 북어바도 몰라 가지고 저송해유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랬는데 이제는 책도 찾아보고 인수 인계할 때도 병명같은거 찾아보고 스스로 하니까..

무슨 환자 무슨 병이 있었고 인계할 때도 다 알아듣고 환자들 모셔다 죽 때도 뭐 물어보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게 그 정도로 공부가 됐거든요. 실습하면서 이제 누가 가르쳐준 다기 보다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공부가 중요하구나 그런걸 깨달았고...

이침에 입어서 병원에 갈 때는 너무 힘드는데 그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게 너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끝난다고 하니까 피곤하면서도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간호사라는 것이 간호지식가지고 주사 놔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인격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간호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구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그런 얘기를 환자가 해주었어요

제가 학생이라기보다 벌써 직장인 간호사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학생으로서 뭇모르고 하는 것보다 '정말 여러 사람들 특히 좀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먼저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마음가짐이라든지가 달라지는걸 느끼게 되요

정신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환자 손잡아주고 격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주는 것 또 병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아는 대로라도 설명을 해드리면 조그마한 부분들이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요즘에 느껴지고...

####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

연구자는 자료로부터 주제를 분리하고 생활세계의 경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기 위해 면담을 세심하게 한 후 옮겨 썼다.

임상실습은 간호학을 한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이고 또한 누구에게나 처음 경험하는 힘든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 진정한 의미는 개인에 따라 다르고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임상실습 체험은 모든 간호학생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이면서도 개인적인 현상으로 현재 학생들이 체험하고 있는 임상실습 경험 연구는 연구자에게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더구나 부속 병원이 없는 전문대 학생들의 임상실습 여건은 학생들로 하여 두려움의 공포의 체험을 더 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 학생들, 간호사에게

가졌던 좋은 이미지 등이 여실히 깨어지고 있는 현장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제와의 차이로 오는 괴리감, 의사와의 갈등관계, 다른 대학 학생들과의 불협화음 등이 학생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 또한 간호사의 비교육적인 태도에 대해 어쩔 줄 모르는 학생들의 모습, 반면 교육적인 태도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어려워하는 것으로는 모든 환자의 바이탈사인을 학생들이 다 감당해야한다는 압박감과 심부름을 학생들이 전담하는 식으로 대하는 간호사들의 태도 등에서 학생들은 지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습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느 정도 병원 환경과 그 제도에 익숙해져 처음보다 바이탈 사인 재는 시간도 빨라져 여유를 가지게 되면서 다른 간호사들도 배우고 하면서 조금씩 자기 스스로 위안을 하고 있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워야 한다는 열의 속에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전문 간호사의 역할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고 있었으며 일에 대한 자신감과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있었고 자신이 능력 있는 간호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과 실습하는 동안 어느새 자신의 내면이 성숙하고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고 앞으로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그리고 있었다.

### III. 결론 및 제언

전문대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밴메논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4단계의 연구과정인 체험의 본질에 집중, 실존적 조사, 현상학적 반성과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를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T시에 위치한 전문대학 간호학생으로 처음 2학년 실습을 시작한 학생 중 자원하는 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999년 3월부터 4월초까지 5주 동안에 3차 걸쳐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들이 경험한 본질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주제는 크게 3단계 즉, 두려움의 첫걸음, 이론과 실재사이의 율동적 양상, 그리고 변화되는 자신의 발견과 확장의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성희(1994), 서문숙 등(1996), Beck(1993), Pagana(1988), Mahat(1996)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나 더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현상은 발전 지향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것에 있다. 또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쓰여진 임상실습 체험(신경림, 1996)과 비교해볼 때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임상실습 현장은 다르더라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같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전문대 학생들의 임상실습경험은 비교육적인 환경과 학생이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단순업무로 인한 부담감등 인력으로 쓰여지는 현장에서 불안과 갈등을 느끼고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자신을 간호학생으로 재정립하고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 현장에서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임상실습 시작 시에 교수가 학생들을 인솔하고 병원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을 병원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임상지도를 맡은 교수는 학생들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임상지도를 강압적으로 하기 보다는 온화한 분위기에서 학생들을 이끌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임상간호사와 학교가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학생지도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습경험을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4. 학생의 실습지도의 향상을 위한 대책과 관련된 연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고성희, 김기미 (1994).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33(2), 59-71.

고효정 (1988). 간호전문대학 학생들이 아동간호학 실습시 느끼는 스트레스. 동산간호전문대학 논문집, 5, 19-34.

문미숙 (1998).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1), 15-27.

박송자 (1993).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 : Q 방법론 적용. 대한간호학회지, 23권 4호, 544-554.

박청자, 이경희 (1994). 첫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인지정도에 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1(2), 149-164.

서문숙, 김명희, 전미영 (1996). 근거 이론적 접근방법을 적용한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 기본간호학회지, 3(1), 128-139.

신경림 (1993). 임상교육의 효과적인 대안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32(5), 93-103.

신경림 (1996). 간호학생의 첫학기 임상실습 체험연구. 성인간호학회지, 8(1), 156-168.

신경림, 안규남 역 (1994). 체험연구. 서울: 동녘.

엄영란, 서연옥, 송라운, 전경자, 유경희, 조남옥 (1998). 실무수행능력중심의 교육모형 및 측정 도구 개발.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2), 220-233.

이승령 외 4인 (1984). 대국어사전, 심영출판사

한경순, 조주연 (1999).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 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9(2), 293-302.

Beck, C. T., (1993). Nursing students' initial clinical experience : a phenomenological study. Int. J. Nurs, 30(6), 489-497.

Kleehammer, K., Hart, A. L., Keck, J. F. (1990).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anxiety-producing situations

in the clinical setting. J. Nursing Education, 29(4), 183-187.

Mahat, G. (1996). Stress and coping : First- year Nepalese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settings. J. Nursing Education, 35(4), 163-169.

Pagana, K. D. (1988). Stresses and threats reported by baccalaureate students in relation to an initial clinical experience. J. Nursing Education, 27(9), 418-424.

Windsor, A. (1987).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clinical experience. J. Nursing Education, 26(4), 150-154.

-Abstract-

Key concept : Clinical experience

###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udents' first Clinical Experience

*Park, Mi Young\* · Kim, Soon Yi\*\**

This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used a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discovery of meaning of the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 in junior colleges.

Data collecting was utilized by in-depth face-to-face interviews of 10 sophomores who were participating in their first clinical experience.

The following themes of the experience emerged.

- 1) The first step of fear (fear, being embarrassed)
- 2) Rhythmical patterning of theory and practice(disappointment of nurses, recognition of the gap between the theory and practice, the conflict between medical doctors and nurses, trouble with the students from other colleges, confusion from nurses' educational and noneducational attitudes, burden of responsibility for nurses' jobs, and the tiresome nature of repeated practice)
- 3) Discovery of changing self, awareness of self-expansion (awareness of professional nurses' roles, formation of self-confidence, changing of one's state of mind)

From this study essential theme of clinical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was identified, and continuous efforts to establish better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to clinical practice are required.

---

\* Hyechon College  
 \*\* Hyechon College